



전북사대부고 1학년 고등 국어 학습지 6

3. 국어와 우리 생활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1학년 ()반 ()번 이름:

[배경지식]

한국어 어문 규범이란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표기와 발음, 문장 부호를 모두 포괄하는 지침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www.korean.go.kr>)의 지식-어문 규범 찾기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언어는 언중¹⁾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에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소리대로 적은 말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달리다	늡다	그늘
빚	웃음	나타나다
국수	몹시	기쁘다
바람	밥상	꿈이
이파리	사라지다	흩어지다

한글은 소리글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여름’ 등은 소리대로 적는다. 이것은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들이다.

또한 ‘으뜸’, ‘잔뜩’, ‘살짝’, ‘옴쩍’, ‘몽땅’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²⁾ 이때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두 모음 사이나 ‘ㄴ, ㄷ, ㄹ, ㅇ’ 받침 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달라진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수’와 ‘몹시’의 경우 소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까닭을 적어 봅시다.

‘_____’ 받침 뒤에 오는 _____는 _____로 적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_____로 나기 때문에 ‘_____’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언어 사회 안의 대중.

2) 한글맞춤법 제5항

- 작은 들꽃을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 흥부 부부가 톱을 **마주** 잡고 **지붕**에 열린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고 있다.

접미사⁵⁾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에도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어근에 접미사 ‘-이’나 ‘-(으)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많이’, ‘묶음’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말이다. ‘-이’나 ‘-(으)ㄴ’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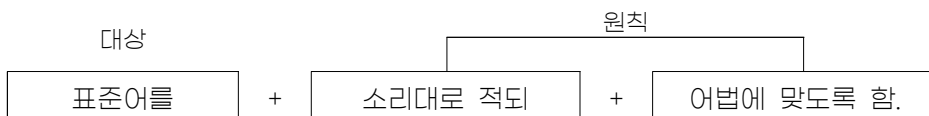
그런데 ‘마주(맞+-우)’, ‘지붕(집+-웅)’, ‘바가지(박+-아지)’는 각각 어근 ‘맞-’과 ‘집’, ‘박’의 본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접미사 ‘-우’, ‘-웅’, ‘-아지’의 본모양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으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접미사 ‘-우’, ‘-웅’, ‘-아지’가 접미사 ‘-이’나 ‘-(으)ㄴ’과 다르게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表音主義)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表意主義) 원리가 담겨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원리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원리이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해 나가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내용 정리하기

①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 제1항은 _____를 _____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규범이다.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소리대로 적을 때	어법에 맞도록 적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기와 소리가 같을 때 예) _____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예) _____ · 두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앞 단어가 본래 뜻에서 멀어진 때 예) _____ ·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여 쓰이는 접미사가 붙은 때 예)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거나 체언끼리 결합하는 때 예) _____ · 두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앞 단어가 본래 뜻이 유지되는 때 예) _____ ·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여 쓰이는 접미사 ‘-이’, ‘-(으)ㄴ’가 붙은 때 예) _____
한글은 _____이기 때문이다.	_____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여 의사소통의 _____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5)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공존

①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표의주의	앞 단어의 _____이 _____되고 있는 경우 예) _____
표음주의	앞 단어가 _____에서 _____진 경우 예) _____

②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

주의	접미사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는 경우 예) _____
주의	접미사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는 경우 예) _____

올바른 표기를 골라봅시다.

- 눈 앞에서 (살아지다/사라지다).
- 그가 길에 (쏟아지다/쓰러지다).
- 틈이 (벌어지다/버러지다).
- 제안을 (받아들이다/받아드리다).
- 〈늑으막/늑그막〉에 복을 누리다.

아래 단어를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와 극히 일부 어근에만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로 구분해봅시다.

목거리	마개	노름
마중	무덤	너비

학습 활동

1. 다음 제시어들의 발음을 쓰고,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봅시다.

단어	발음	원리
바람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밥상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곧이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이파리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사라지다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흩어지다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2. 아래 선생님의 설명과 한글 맞춤법 규정을 종합하여 알맞은 표기를 고르고 그렇게 표기하는 까닭을 써봅시다.

선생님: 접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은 ‘급하다’, ‘뚜렷하다’와 같이 본모양을 밝혀 적어요. 왜냐하면 ‘-하다’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나 ‘-히’도 마찬가지여서 ‘뚜렷이’, ‘급히’와 같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갑자기’처럼 소리대로 적어요. 한편 ‘곰곰이’와 같은 말은 ‘곰곰하다’처럼 ‘-하다’가 붙을 수 없지만 ‘곰곰’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모양을 밝혀 적는답니다.

한글 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생긋이 해죽이

표기	까닭	원리
깨끗이/깨끗히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슬몃이/슬몃히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일찍이/일찍히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더욱이/더욱히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
어렵듯이/어렵푸시		소리대로/어법에 맞도록